



전동킥보드 ‘쌩쌩’... 보행자들은 ‘불안’

차도·인도 넘나들며 주행 예상속 사고위험 높아 도로교통법 개정...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해져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놓고 보행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는데 시민들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이른바 겸용 도로가 대다수인 제주지역의 자전거도로 사정 상 보행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8시쯤 제주시청 인근, 전동킥보드를 탄 여성이 횡단보도를 가로 지르자 놀란 일부 시민들이 킥보드를 피해 차로와 횡단보도를 넘나드는 모습이 목격됐다.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위협하는 마냥가다. 보도에 진입한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잃어 다시 차로가

장자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도남동 연삼로 일부 구간에서도 전동킥보드가 차로와 보도를 오가며 달리고 있었다.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도로를 가득 메웠다.

강도(27·제주시 오동동)씨는 “예전엔 관광지 인근에서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연삼로·연북로 등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에서도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은 운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다.



지난 1일 제주시청 인근 보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고 있다. 강다혜기자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기존처럼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하며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내 자전거 전용 도로는 2곳 뿐인데다 자전거 도로 대다수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인 탓에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다닐 수 밖에 없어 안전 사고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철(31·제주시 합덕리)씨는 “제주시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이라 자전거도 주의해야 하는 와중에 전동킥보드와도 나란히 다녀야 한다면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제주 시내 전체 자전거도로 노선 382곳(2018년 기준) 중 자전거 전용 도로·전용 차로는 2곳 뿐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18곳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36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곳곳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접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 일을 하며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고모(47)씨는 “다들 말부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 지금처럼 인도나 차도에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틀렸던 문제 다시 보며 감각 유지”

대학수학능력시험 D-3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수능을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수험생들의 시계도 다이상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시대의 수능=먼저 바뀐 고사장 환경을 염두에 뒀다. 히터가 켜진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책상마다 가림막도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마스크 종류(KF-80 이상)를 미리 선택하고, 수능과 비슷한 조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또한 지난 9월 모의고사가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된 점을 감안하면 ‘불수능’이 될 확률은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모의고사 등에서 틀렸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 및 복습이 필요하고,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과목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한달을 남긴 시점부터는 학습 환경의 변화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 시험 전까지 최대한 동선을 줄이는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원천차단하는 것도 올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한 수능=제주도교육청도 수능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역지침을 토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능을 일주일 남긴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내내 14곳(제주시 10곳·서귀포시 4곳)에 마련된 고사장에는 방역을 위한 인력 및 물품이 배치되며 고사장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실 3곳 가량이 마련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르며, 확진 수험생은 제주대학교 음압 병실에서 시험지를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달 동안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쌓여가는 가을 흔적... 가로수 낙엽 낙엽이 수북이 쌓이면서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2일 제주시 서사로 일대 가로수에서 잎이 떨어지자 환경미화원이 낙엽을 쓸고있다. 강희민기자



제주안전체험관 외부 전경과 내부 모습.

사진=제주자치도 제공

제주안전체험관 오늘 문 연다

재난 체험·안전 교육 진행

다양한 재난 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이 3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연다. 전국에서 여덟번째로 개관되는 안전체험관이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제주안전체험관은 256억원(도비 19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6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건축면적 5376㎡) 규모로 지어졌다.

체험관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특성화 체험구역 안에 풍수해, 지진 등 10개 체험시설에 21개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췄다. 특히 2층과 3층에 마련된 특성화 체험장에서는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맞게 선박사고와 항공기사고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다.

하루 최대 교육인원은 320명으로 연간 9만6000명 교육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설이용에 따른 요금은 없으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교육을 받고 싶

으면 미리 전용 누리집(<http://www.jeju.go.kr/119safe>)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공문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은 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10명, 2단계에서는 60명으로 변경되며, 3단계로 격상되면 운영이 중단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를 안전도시로 만드는 데 체험관이 그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도민뿐만 아니라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정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역특성상 인근 지역에서 안전체험 교육이 어려운 제주도에 체험관이 개관되어서 기쁘다”면서 “내년에는 경남, 인천 등 5개 체험관의 개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내부분건 유출 공직자 선고유예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의 실명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원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5급 공무원 현모(59)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현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50

분쯤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책회의’에 참석해 도내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이 담긴 문건을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전·현직 직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처가 식구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지인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건에는 도내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22·여)씨의 시간대별 동선과 함께 A씨가 탄 택시의 번호판, A씨가 근무한 호텔의 동료 직원 실명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한편 양윤경 당시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 내부 문건 유출로 논란이 일자 공개 사과하고 현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흡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차적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1세기 최첨단 비료 → 히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탄생



이노페스

중미개선 뿌리발달 당도 향상

광합성 촉진 생산성 증대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염류중화로 뿌리생육 발달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 과	
원료명	히토류	원료명	염류중화	효과	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원료명	식이유황(MSM)	원료명	천연항균	작용	천연항균 작용
원료명	부식산	원료명	유기물 대체	효과	토양개량
원료명	벤토나이트	원료명	토양개량	효과	토양해중기피
원료명	고삼·백합추출물	원료명	토양해중기피	효과	천연질소질 공급
원료명	아미노산	원료명	천연질소질 공급	효과	필수 미량요소 공급
원료명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원료명	필수 미량요소 공급	효과	

기비(밀거름) 1,000평/모

작 목	사용량	작 목	사용량
키 위	20-25	노지작물	10-12
만감류		하우스 감귤	15-20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